

vol.153 2022년 12월

오늘의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우루과이에서 개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

CONTENTS

특집

-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우루과이에서 개최 3
-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 6

최근 활동

-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10
- 오션, 브라이언임팩트 '임팩트 그라운드' 선정돼 12

세미나 중계

- 461회 |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서 가장 흔한 쓰레기인
담배꽂초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향하여 13
- 2022년 12월 오션 세미나 계획 공지 15

해양환경 뉴스

- [12월 해양생물]귀족 바닷새 '검은머리갈매기'를 지켜주세요 17
-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20% 재활용"
불나방도 고니도 멸종위기, 기후위기에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
EU, '탄소 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부과

공지사항

- 11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18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우루과이에서 개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큰 숙제 본격적으로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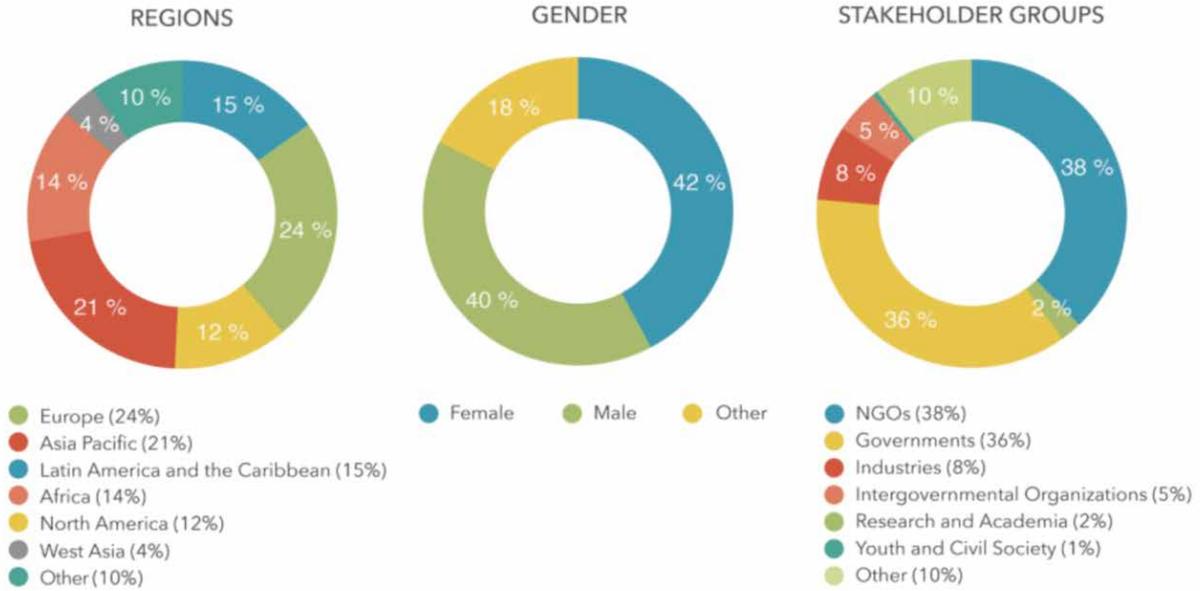
이세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crhee@osean.net



▲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 개최사, 우루과이 환경부 장관 아드리안 페냐(Adrián Peña)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1)가 개최되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인증된 비정부기관으로 INC-1에 참석하였고 한국의 유일한 시민사회단체로 INC-1의 진행상황을 밀접하게 지켜보았다. 160개국에서 약 2300명이 참가한 INC-1은 각국의 대표단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업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북적였다. INC-1이 정식으로 개최되기 전 다자이해관계자 포럼 (Multistakeholder Forum)이 열렸는데 이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기존의 패널발표와 즉문즉답의 시간을 갖는 대신 3개의 주제 1) 자원순환을 위한 제어 및 디자인, 2) 자원순환의 실행, 3) 폐기물 저감 및 개선을 다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탁회의 방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과 협력을 실천하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안타깝게도 장정 7시간 가량의 대화는 뚜렷한 방향 및 결과물 없이, 논의된 요지만 공유되었다. 다자이해관계자 포럼의 구성 및 목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의제로 삼은 정부 대표단의 논의가 INC-1의 셋째날에 진행되기도 했다.

Attendees (virtual and in-person) of the Multi-stakeholder Forum



▲ 다자이해관계자 포럼의 대면 및 온라인 참석자들의 대한 데이터¹

INC-1의 의제는 크게 플라스틱 협약의 범위, 목표, 구조, 잠재적 요소, 조항 및 규정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입장은 대부분 비슷했다. 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이며, 플라스틱이 인간 건강, 환경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이 외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제기를 하는 몇몇의 국가들도 있었고, 인권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가들 또한 다수 있었다. 한국의 입장은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이 플라스틱의 전주기 접근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 핵심 의무, 통제 조치 및 자발적 접근 방식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 생산, 무역 부문이 협약의 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징벌적인 정책보다는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대표단의 외교부 한민영 심의관은 플라스틱 협약이 바닥을 향한 경주가 아닌 정상을 향한 경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을 먼저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늘리되, 재활용의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친환경적인 폐기도 중요하다고 했다.

¹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multi-stakeholder-forum-inc1>

INC-1에서 국가간 가장 대조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협약의 구조와 이에 대한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고 범 지구적인 조치 및 공통 표준이 핵심이 되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국가별 행동계획 중심의 자발적인 조치에 치중하는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을 선호했다.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월경성 환경 오염은 국가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일 때 성공적인 국제 협약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오션과 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오션을 비롯한 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은 2023년 1월에 플라스틱 협약의 하향식 접근의 필요성을 서면 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네 번의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남아있다. 제2차 위원회는 내년 5월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계획이며 3차 위원회는 케냐, 4차는 캐나다, 그리고 2024년에 5차 위원회를 한국이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이 INC-1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 INC-1에서 생각보다 부진한 논의로 인해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매우 중요 한 협약의 주요 요소 및 INC-1에서 합의를 못 본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라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오션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류하여 한국 및 아태지역의 추진 방향이 진정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의 달성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국제 환경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퐁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연합'의 친목 활동 중, 이세미 팀장 (중)

특집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과학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 가공,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상세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심는다.

- 1 연안 정보 한 데 모아 새로운 가치 창출
- 2 선박의 운항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빅데이터
- 3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

연안 분야 빅데이터 활용으로 미래 신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정호승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hodorio@osean.net
김령규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rgkim@osean.net

다채로운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론칭 행사

12월 1일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런칭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주관 기관을 비롯한 구축 기관, 연안 분야별로 데이터를 생산한 센터내 참여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산업계, 학계, 단체, 협회,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모인 한 마당이었다.

플랫폼 홍보영상과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그 동안 이뤄낸 여러 성과 요약 발표, 연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연대회 우승자들의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초빙 전문가 발표에서는 플랫폼에 구축된 혁신서비스 소개와 설명, 연안 빅데이터 수요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 운영 자생화 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그리고 각 10개 센터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설명과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 부대 행사로 수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센터별 홍보 부스에서 방문객 컨설팅도 진행되었다.



▲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기념식 행사와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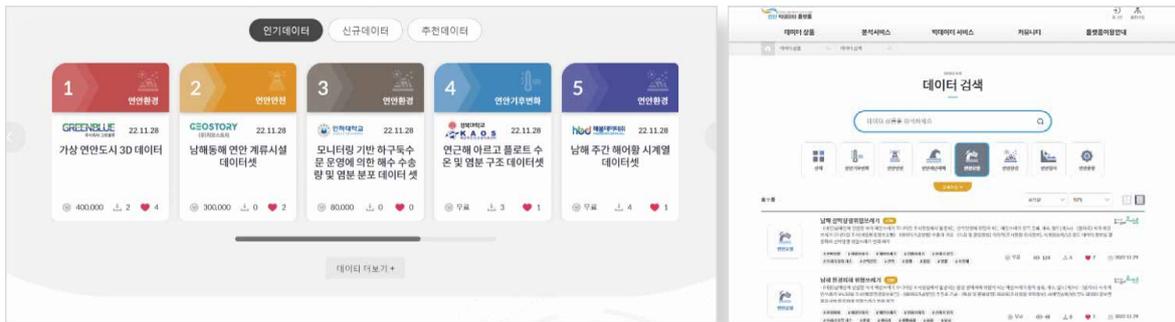
연안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검색부터 활용 서비스까지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고, 데이터 생산과 품질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https://bigdata-coast.kr>)이 구축되었다.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정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 종류는 총 162종으로 각 분야별로는 연안기후변화 36종, 연안안전 32종, 연안재난 재해 19종, 연안 오염 9종, 연안환경 42종, 연안침식 18종, 연안운항 6종이 공개되어 있다. 인기데이터, 신규데이터, 추천데이터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여 검색어와 세부 상세검색 기능으로도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https://bigdata-coast.kr) 메인 화면



▲ 데이터 검색 기능 화면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뿐 아니라 여러 활용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연안분야 빅데이터 혁신서비스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정도와 태풍발생시 폭풍해일고 영향 정도를 조절하여 피해상황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인 ‘위기의 도시’가 있다. 또,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응을 위한 연안정화 참여형 종합 서비스인 ‘바다가꿈의 날’도 제공하고 있다.



▲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혁신서비스

이외에도 개방된 데이터를 일반 사용자, 전문 데이터 분석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가지 분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간분석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면 대량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GIS 기반 시각화로 변환할 수 있다. 시각화 분석 기능은 차트, 대시보드(Dashboard), 에스큐엘랩(SQL lab)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가시화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기능은 파이썬(Python), 알스튜디오(R studio)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은 수요자의 역량에 맞춰 사용한다면 데이터의 활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연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석서비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

연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존 데이터의 업그레이드와 수요처의 활용도가 높은 신규데이터 생산, 혁신서비스 확대, 교육지원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연안 정보의 집합체인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관심 있는 많은 수요처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기회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청항선 및 시범정화 수거 쓰레기 처리 방안 논의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장윤정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oonie.jang@osean.net
이유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unalee.osean@gmail.com



▲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개선 사업 정책워크숍 모습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한국국제협력단 의뢰로 수행중인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의 정책워크숍이 12월 1일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본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세부 정책 조정을 위해 열렸으며, 본 사업에서 운영할 청항선과 해안 시범정화 사업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 사무소 유지영 부소장과 필리핀 수도권 환경청 이그나시오 알미라 주니어 차장과 관련 부처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션의 장윤정 연구원이 사회자로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오션의 이종명 연구소장은 2022년에 진행된 현지 착수조사와 사업실행 계획 조정에 협조해 준 필리핀 환경부에 대한 감사 인사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이 사업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 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등에서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대응 사례로 발표된 것을 소개했다. 필리핀 환경부의 이그나시오 알미라 주니어 차장은 필리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마닐라만의 수질을 사람이 수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본 사업이 마닐라만 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¹ 이전 기사 “KOICA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PMC 용역’ 착수”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code=activity&idx=7287>

첫번째 세션에서는 청항선 수거 쓰레기의 처리 방안이 주제였다. 해양환경공단의 이주연 과장은 한국의 청항선 운영과 쓰레기 처리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무역항에는 항만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청항선이 14척 운영되고 있다. 청항선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항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필리핀 환경부 마닐라만 조정사무국의 본 사업 담당자 아이라 이노센시오는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전략을 소개했다. 마닐라만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청항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안정화 사업 수거 쓰레기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오선의 이유나 연구원은 한국 해양폐기물 관리법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안쓰레기 관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해안쓰레기의 수거 처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자체의 해안쓰레기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수도권 환경청 연안관리 담당자 저스틴 라모스는 본 사업 시범정화 대상지인 라스피냐스-파라나케 습지공원의 해안 청소와 쓰레기 처리 현황을 소개했다. 필리핀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곳 습지공원의 해안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본 사업 시범정화에서 수거된 쓰레기도 기존 쓰레기 체계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 수립 추진

세번째 세션에서는 본 사업에서 개발할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오선의 이종명 소장은 본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경과를 소개했다. 사업 착수 후 연구진은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과가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국가 계획’이나 ‘마닐라만 개발 전략’ 등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해 왔다. 본 사업 후반부에 작성할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은 유엔이 제시한 관리 계획 수립 지침과 다양한 정책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할 현지 역량 강화 연수와 한국 초청 연수 계획도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이번 워크숍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후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 사무소 유지영 부소장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그린ODA 개발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프로젝트 개발이 마닐라만에서도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이 필리핀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력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환경부 국제협력실의 에디 아부간 주니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보 공유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감사한다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폐회사 하는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 사무소 유지영 부소장

오션, 브라이언임팩트 '임팩트 그라운드' 선정돼

지원금은 열일캠페인, 바다기사단 등에 활용할 예정

박은진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ejpark@osean.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 그라운드'에 선정되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재산 절반 기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임팩트 그라운드'는 브라이언임팩트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비영리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3월 1기 사업에 6개 단체를 선정해 총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기 사업에서는 인권, 환경, 교육, 지역사회 등 여러 분야의 혁신 조직 15곳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2기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연합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청소년성소수자위키지원센터 띠동 ▲미래교실네트워크 ▲비투비 ▲빅이슈코리아 ▲서울재활병원 ▲공익법센터 어필 ▲열린옷장 ▲점프 ▲지리산이음 ▲피치마켓 ▲핸드스피크가 선정됐다.

오션은 열일캠페인, 바다기사단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기념납시 등을 통한 쓰레기 아이템별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 정책 제안,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납시쓰레기 제도 개선 시범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12월 2일 브라이언임팩트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제공: 브라이언임팩트)



▲ 임팩트 그라운드 2기에 선정된 15개 단체들(사진 제공: 브라이언임팩트)

제461회 오션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서 가장 흔한 쓰레기인 담배꽂초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향하여

장윤정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oonie.jang@osean.net

2022년 11월 22일 제461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서 가장 흔한 쓰레기인 담배꽂초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향하여’라는 논문을 다뤘다. 세미나에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들과 오션스40 강사단 등이 참여했다.

원문

Mercedes Conradi, J. Emilio Sánchez, Moyano, 2022. Toward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for cigarette butts, the most common waste worldwide on the coast,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847:157634

요약문 번역

순환 경제는 물건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버려지는 품목은 담배꽂초이다. 이러한 쓰레기는 해양 서식지에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집하기 어렵고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쓰레기는 과도한 경제적 비용과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큰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이는 생분해성이 아니며 해양 유기체에 매우 독성이 강하고 물리적 및 화학적 오염이 뚜렷하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위험한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폐기물을 직접 생산 또는 재활용의 대량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시민의 열악한 환경 행동 때문에 수거량이 부족하다. 이 논문은 담배꽂초의 수명 주기에 대한 글로벌 비전을 갖기 위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1)담배꽂초 문제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며, 2)알려진 사실과 그 차이를 모두 나타내며, 3)문제를 끝내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의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담배꽂초 문제의 현재까지 종합을 제시한다.

토의한 내용

1. 담배꽂초 쓰레기가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 중 하나이다.
2. 담배꽂초 투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약하다.
3. 담배꽂초 자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7000여가지 이상이며, 이것이 생태계로 들어갔을때 수중환경과 생물에 독성을 미치는 것(흡착, 탈착) 또한 큰 문제이다.
4. 담배꽂초의 재활용에 대한 장단점, 특히 담배꽂초가 내포하고있는 독성 처리가 재활용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담배꽂초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
5. 해변정화를 통한 담배꽂초 줍기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이며, 사용자 중심의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6. 오션은 열일 캠페인에 담배꽂초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오션 열일 캠페인_담배꽂초'편 (@osean_net)

7. [아이디어]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실험- 풋말과 쓰레기통 유무에 따른 담배꽂초 투기율 변화 조사를 추진해 볼 만하다.
8. [제안] 인식증진보다는 사회적 행동변화,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OSEAN 세미나 참가 신청

안녕하세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6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12. 30
홍선욱 두 손 모아

참가 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 확인해주세요.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9-5224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OSEAN 1월 세미나 일정

1월 3일 10:30 AM 제 466회 오션세미나

전문가 도출, 실증 데이터 및 공간 모델링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위험 매핑

Jordan Gacutan, Edwina Foulsham, John W. Turnbull, Stephen D.A. Smith, Graeme F. Clark, 2022. Mapping marine debris risk using expert elicitation, empirical data, and spatial modelling,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38:44-55

1월 10일 10:30 AM 제 467회 오션세미나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Ryan PG, Pichegru L, Perold V, Moloney CL, 2019. Monitoring marine plastics – will we know if we are making a difference?, *S Afr J Sci.* 2020;116(5/6)

1월 17일 10:30 AM 제 468회 오션세미나

현장 측정으로 밝혀진 여과 섭식 거대 동물의 미세플라스틱 섭취 위험

S. R. Kahane-Rapport, M. F. Czapanskiy, J. A. Fahlbusch, A.S. Friedlaender, J. Calambokidis, E.L.Hazen, J.A.Goldbogen, M. S. Savoca, 2022. Field measurements reveal exposure risk to microplastic ingestion by filter-feeding megafauna, *Nature Communications* 13:6327

1월 31일 10:30 AM 제 469회 오션세미나

해양쓰레기 매핑을 위한 드론: 항공 이미지에서 표착쓰레기 항목을 식별할 때 식별자간 일치율 테스트

Umberto Andriolo, Gil Gonçalves, Nelson Rangel-Buitrago, Marco Paterni, Filipa Bessa, Luisa M.S. Gonçalves, Paula Sobral, Monica Bini, Diogo Duarte, Angela ´ Fontan-Bouzas, Diogo Gonçalves, Tomoya Kataoka, Marco Luppichini, Luis Pinto, Konstantinos Topouzelis, Anubis V´elez-Mendoza, Silvia Merlino, 2021. Drones for litter mapping: An inter-operator concordance test in marking beached items on aerial images, *Marine Pollution Bulletin*, 169:112542

회의실 링크

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12월 해양생물]귀족 바닷새 ‘검은머리갈매기’를 지켜주세요

newsis.com/view/?id=NISX20221130_0002105417&cID=13001&pID=13000

[출처] 뉴시스 | 2022.11.30 | 박성환 기자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20% 재활용”

news.mtn.co.kr/news-detail/2022121216070434764

[출처] MTN뉴스 | 2022.12.12 | 천재상 기자

불나방도 고니도 멸종위기, 기후위기에 한반도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

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0593

[출처] 비즈니스포스트 | 2022.12.13 | 이상호 기자

EU, ‘탄소 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부과

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0

[출처] 뉴스펭귄 | 2022.12.14 | 남예진 기자

2022년 11월에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내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강대석, 강동용, 강륜화, 강민구, 강성길, 강재영, 강정훈, 고문현,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권단비, 권미양,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원, 김민정,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승규, 김아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규,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재진, 김지혜, 김지환, 김진일,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지, 김호상, 김호찬, 김환희, 김효정, 김 훈,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도영준,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경숙, 문명희, 문효방, 민병걸, 박경규, 박경화, 박경희,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미선, 박 솔, 박연자, 박영규, 박요섭, 박윤경, 박은주, 박은주, 박은지,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배창수, 변효진, 서은희, 서정미, 선희경,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어진,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민주, 신소린, 신재영, 신춘희, 심원준, 심이나,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양명기, 양수민, 예수진, 오경희, 오기택,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유병덕,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현정, 은자경, 이강만, 이경아, 이경희, 이광수, 이광재, 이동경, 이동규, 이두형, 이문숙, 이보경, 이보경, 이석중, 이순천,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리, 이인숙, 이인식, 이재환, 이정민, 이정민, 이정은, 이정미, 이정현,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주언,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진아, 임채원, 임효혁, 임효희, 임희근, 장 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구, 전현수, 전해영, 전홍선, 전홍표, 정미현, 정민경, 정수경, 정승애,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문경, 조성수, 조성익, 조영숙, 조현숙, 조홍연, 진 주, 채정연, 김의태, 채홍기, 최나현, 최명애, 최승만, 최시열, 최영석, 최용준, 최윤숙, 최은정, 최주섭, 최지연, 최지현,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허인숙,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황청희, 황혜진

11월 후원해주신 기업과 단체

드림오션네트워크, 리와인드, (주)허니랩, 비오템, EIC 비즈니스모델 C조

• 회원가입과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

회원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Tel 055-649-5224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인스타그램 @osean_net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박은진, 이세미, 장윤정, 이유리, 강민구, 엘리시아 로, 도파라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발행인 홍선욱

디자인 바오

편집장 이종명

인쇄 평화문화사

전화번호 055-649-5224

홈페이지 www.osean.net

이메일 osean@osean.net

카페 cafe.naver.com/osean

인스타그램 @osean_net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저작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 153호 2022년 12월호, 홍선욱(편집)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